

성장소설로 본 「우상의 눈물」의 함의

박선양(전북대)

〈목 차〉

- | | |
|--------------------------------|-------------------|
| 1. 서 | 4. 성장주체가 되지 못한 경우 |
| 2. 유대의 미완의 성장
-문제의식과 비판적 순응 | -모방과 대리수행의 제자리 |
| 3. 기표의 불확실한 성장
-위악과 떠남으로 저항 | 5. 세 성장의 관계와 의미 |
| | 6. 결 |

1. 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상징적 의미의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강요된 부권에 반항하며 성장을 모색했다. 이는 근대문학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시작된 데 기인¹⁾한다. 또한 성장소설은 기존 권력 담론의 수용보다는 그러한 담론의 변형이나 변이를 추구한다. 대부분의 성장소설에서 문제적 인물인 성장주체가 기존 권력 담론과 거리를 두고 기존 질서의 이념이나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는 양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 때문²⁾이다. 그러므로 성장 소설은 당대의 사회역사적 환경을 잘 드러내면서 이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1)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335~336면.

2)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172면.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소설 중 유년에서 청년에 이르는³⁾ 성장기 인물의 성장 과정을 작품의 핵심 주제나 구성의 주요소로 삼은 소설들을 보통 성장소설로 분류하여 논한다.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Bildungsroman’과 ‘Initiation’이다. 작가는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자아가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갈등하면서 성숙해가는 내면적 발전과정을 묘사하고 이 과정에서 통과의례가 드러나는⁴⁾ 것이다.

성장소설의 성장주체들은 미숙한 인물로서 사회 구조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장소설에는 다종다양한 성장이 나타난다. 대개의 성장소설이 보여주려는 ‘성장’은 에릭슨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역할혼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타나는 정체성 추구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발달을 피하기 때문에 성장소설에 나타나는 성장의 변화는 뚜렷한 전망을 보여주거나 외형적으로 확연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미완이나 불확실한 노력도 모두 성장의 주요한 성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⁵⁾했다. 이 시기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대부분에는 한국 근대화 과정의 혼돈을 보여주듯이 아버지의 부재나 무능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성장주체들은 대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장의 계기를 얻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장주체에게는 학교가 부권과 기성사회를 함께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 개인의 학교체험은 단순한 학교체험이 아니라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축소판으로 인식⁶⁾되기 때문이다.

학교를 물리적 배경으로 삼은 1970~80년대 성장소설로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3) 인간의 성장이나 성숙은 사실 끝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용환은 성장소설에서 성장 시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두어야 한다며 그 시기를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로 한정 지었다. 한용환,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성장소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 제 5권, 1998, 371면.

4)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12면.

5) 최현주, 앞의 책, 16면.

6) 김현정, 「전상국 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60면.

들 수 있다. 이들은 성장주체들이 기성사회의 권력을 수행하는 교사와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이다. 세 작품 모두 성장기 인물이 둘 이상 등장하며 그 중 한 인물은 폭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다른 성장주체는 기성권력의 수행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같은 성장기의 인물과도 갈등을 겪는다.

대개의 성장소설은 성인이 된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며 경험 당시에는 몰랐던 자신의 삶을 조망하여 객관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7)을 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병태는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타협보다 석대의 위악적 저항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석대는 여전히 악을 행하다 기성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아우를 위하여』의 주인공은 교생 선생님에게 성장의 계기를 얻어 주체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갔던 성장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춰 『우상의 눈물』은 현재의 시각으로 현재의 사건을 서술한다. 기성사회의 모습과 기성사회를 대리하는 성장기 인물, 기성사회와 갈등하며 저항하는 성장기 인물은 모두 단일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서술자 역시 성장기의 인물로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성장의 변화를 보여준다. 성장기의 서술자에 의해 초점화되는 다른 성장기 인물들의 변화는 서로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상의 눈물』에는 다양한 성장의 모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층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우상의 눈물』은 현재의 사건을 성장기 서술자가 전달하기 때문에 성장의 변화를 조망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열린 결말 구조를 지니는 성장소설은 다양한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하여 성장기 독자의 상상력을 고양(8)시킨다. 독자가 함축적으로 성장의 다음 단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고는 『우상의 눈물』에 보이는 열린 결말 구조의 성장이 성장기 독자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통하여 성장소설로서 『우상의 눈물』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나온 성장소설의 통시적 연구(9)에서 『우상의 눈물』을 직접적으로

7) 김병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구조와 의미망』, 한국학술정보, 2007, 170면.

8) 김은정, 『청소년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4면.

9) 남미영(1998), 최현주(2002), 김병희(2007), 나병철(2007) 등의 연구.

분석한 적은 없다. 최현주(2002)가 자신의 저서에 부록으로 실은 성장소설 작품 목록에 올렸을 뿐이다. 전상국 소설을 연구한 선행 논문에는 「우상의 눈물」이 학교라는 알레고리 공간¹⁰⁾과 악과 폭력의 체험¹¹⁾을 분석하는 대상작품이었다. 성장소설로 「우상의 눈물」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¹²⁾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에서도 교사상과 서술자 유대의 성장에 집중하거나 성장기 주인공의 악의 체험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¹³⁾

본고에서는 서술자의 성장을 포함하여 성장기 세 인물의 변화 양상을 모두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성장소설 분석 구조인 저항·순응(또는 굴종)·분노(또는 자기발견)의 개념¹⁴⁾을 적용하여 세 성장기 인물이 기성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필 것이다. 기성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장의 단계가 다른 성장기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 서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각자의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추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상의 눈물」의 구조인 열린 결말에 나타난 성장의 모습들(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이 작품이 성장기 독자에게 지니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2. 유대의 미완의 성장-문제의식과 비판적 순응

성장의 유형은 자아의 내면에 대한 탐색과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에 따라 구분된다. 탐색과 적응을 통해 성장주체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하기 때문¹⁵⁾이다. 인식과 실천의 차원이 모두 성장의 주요소인

10) 양선미, 「전상국 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황수정, 「전상국 소설의 공간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11) 김현정, 앞의 논문.

12) 송용주, 「교육소설에 나타난 교사 상 고찰과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 교수법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진아, 「성장소설을 통한 문학교육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 양승숙, 「한국 성장소설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전해정, 「성장소설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진혜정, 「성장소설에 나타난 교사의 유형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황성애, 「전상국의 성장소설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등.

14) 남미영, 앞의 논문, 107면.

15) 최현주, 앞의 책, 42면.

것이다. 성장소설의 서술자는 기성사회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비판적 거리는 인식의 차원이고 대항은 실천적 차원에 속한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유대이다. 유대는 기성사회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첫 날, 답임은 과학 선생답지 않게 비유를 쓰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하자고 훈시한다. 학생들에게 자율이라는 고삐를 말기겠다는 답임을 신뢰할 수 없는 유대는 질문을 한다. 유대는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답임의 저의’¹⁶⁾를 찢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유대는 1학년 때 반장으로서 의도치 않게 기성사회의 첩자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유대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답임에게 모두 알렸다. 자신의 말이 아이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즐거움과 우리를 위해 자신의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새 답임에게 그 역할을 다시 제의받는 것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유대는 좋은 선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유대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은 조건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¹⁷⁾이다.

“이제부터 육십육 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¹⁸⁾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선생님, 우리가 탄 이 배의 선장은 누구니까?”¹⁹⁾

그런데 유대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이 행동 때문에 임시반장이 되고 기표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린치’를 당한다. 유대가 이해하기에 그 폭력은 ‘절대적 악의 화신’인 기표와 한 반이 된 자신들의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겪어야 할 두려움을 미리 겪은 자로서 형우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스스로는

16) 전상국,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9면.

17) 앞의 책, 11면.

18) 본문에서 단락 미만의 내용을 중략했을 때 문장 중에 ‘...’로 표시한다.

19) 전상국, 앞의 책, 9~10면. 앞으로 본문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내각주로 면수만 제시한다.

먼저 겪었다는 우월감까지 맛볼 수 있었다. 기표는 철저히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직접 받은 아이들조차도 기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유대는 기표를 미워하는 선생님에게 적개심까지 느낀다. 기표를 부반장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는 선생님에게 유대는 질문을 한다.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뻘뻘 쳐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안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16면)

첫 시간에 그랬듯이 속과 겉이 다른 담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기성사회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한다. 악을 포장하지 않는 기표와 대립되는 기성사회의 위선적 의도 또한 유대는 질문을 통해 들춰낸다. 형우가 기표의 낙제를 막기 위해 제안한 컨닝사건으로 기표에게 린치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은 형우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형우는 기표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게다.”

“뭘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던 말입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온 짓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 준 것도 알고 있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저 음흉스러움,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떼 그 저의는 무엇인가. (31~32면)

형우가 기표를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은 기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담임과 형우를 위한 행위였다. 기표의 악행이 심할수록 기표를 위한 자신들의 선행은 돋보이기 때문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기표는 기성사회의 ‘저의’를 행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유대가 사촌형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20면)

유대는 기성사회의 대리인인 반장 형우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형우가 기표의 낙제를 막기 위해 조금씩 시험지를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자 그의 교활함을 간파하고 정곡을 찌른다. 이때 유대가 형우에게 던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나?”²⁰⁾는 질문은 담임에게 했던 질문과 같다. 유대는 담임과 형우가 한 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유대는 질문을 함으로써 형우가 기성사회의 대리자임을 밝혀낸다. 형우는 무의식중에 담임과 자신을 ‘우리’로 묶고 있다.

“그때 그 일,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줬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나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기표를 나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33~34면)

유대는 예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기표를 향한 구원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낸다. 담임과 형우의 위선 역시 답변을 통해 밝혀지게 한다. 담임은 기표를 구원한다면서 기표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담임은 도리어 기표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는 재수파를 옥죄어서 기표

20) 전상국, 앞의 책, 21~22면.

의 독을 빼고 싶어 한다. 형우는 자신이 기표를 구원하는 일을 일임 받았다고 생각한다. 둘은 기표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한편 유대의 엄마는 교사들이 원하는 권위를 다스리는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바로 촌지이다. 유대도 이것을 알고 있다. 유대는 이미 첩자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양면성을 경험하였다. 유대는 엄마의 양면성과 허위의식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일 주일이 멀다하고 학교에 전화하면서도 아들의 허벅지 상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는 반장하기를 원하는 엄마에게 공부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 구속을 피해간다. 유대는 기성사회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

유대는 의도치 않은 첩자의 경험과 엄마의 금권을 통해 기성사회의 위선을 이미 체험했다. 이로써 그는 기성사회의 허위를 간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얻은 유대는 말로만 기성사회를 비판할 뿐 기성사회에 저항하지는 않는다. 유대는 ‘반장의 경험이 무서운 구속이었고 남에게 다스림 받는 데서 얻는 마음의 안일을 더 좋아’²¹⁾하기 때문이다. 형우의 교활함도 알아채고 지적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유대는 형우의 답변을 수긍해 준다. 첩자였던 기억과 새 담임이 이를 인계받아 다시 그 역할을 제안했을 때의 놀라움은 기표에게 극단적 폭력을 당했던 경험보다 더 충격적이어서 유대는 깨달은 인식을 실천하기 힘들다. 유대는 구조적 악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성사회에 문제만을 제기하는 거리두기를 택하는 것이다.

3. 기표의 불확실한 성장-위약과 떠남으로 저항

서술자 유대의 1차 초점화 대상인 기표는 학우들에게 ‘절대적 악의 화신’, ‘악마’라고 지칭된다. 담임에게 포섭당한 재수파들은 기표가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한다. 담임에게는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망할 새끼’이다. 기표는 기성사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악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기표의 폭력은 학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유대를

21) 전상국, 앞의 책, 12면.

비슷한 아이들은 기표를 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격적 린치를 당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표가 악마의 자식일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조차도 그를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표가 깨어져 나간 사이다병의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그의 건어 올린 팔뚝에 사악 사악 그어갔다. 기표가 그 팔뚝을 내 눈앞에 들이댔다. 훔아! 기표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진득한 액체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나 자신도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내 바지에서 핵대가 풀려나간 다음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 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다섯 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나는 드디어 허물어 내리듯 의식을 잃어갔다.(7~8면)

다섯 놈이 캠핑을 나가 여학생 하나를 결단냈다. 당한 애가 인상을 말했기 때문에 범위는 대번 좁혀져 재수파들이 학생부실에 불러갔다....그때 재수파 중의 한 아이 어머니가....학생부실에 들어가기 무섭게 기표를 손가락질했다. 저놈, 저놈이.... 우리 해중일 망치는 놈이 바로 저놈이라우! ...기표는 눈썹 하나 까다하지 않은 채 해중이를 돌아보았다. 이 새끼야, 내가 느네 엄마 말대로 널 맨날 불러냈나? ...해중이가 느닷없이 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기 시작했다. 엄마, 기표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선생님, 접때 그 일은 제가 했어요....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학생부실 시멘트 벽에 머리를 두어 번 부딪쳤다....(28면)

유대는 그 이유가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같다고 여긴다. 유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기표의 악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기성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악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거짓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기성사회의 악은 표면적으로 선의 모습을 지닌다. 그러므로 조심할 수 없으며 예측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유대는 기표에게 린치를 당했지만 이 보다는 1학년 담임이 자신을 첩자로 만들었던 일을 더 충격적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첩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

치욕스런 역할을 인계한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대는 기성사회의 구조적 위선과 기표의 폭력을 대립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표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아버지가 무능한 기표의 집안은 시집간 누이가 주는 돈과 누이동생이 버스 안내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몸이 약한 누이동생은 그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자 술집에 나가려고 한다. 기표는 이러한 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가장의 무능을 대신하지 못하고 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표의 부끄러움은 폭력이라는 위악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기표는 폭력을 통해 우월감을 얻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²²⁾이다. 중학교까지 도합 4년의 반장 경험으로 권력 뒤의 고독을 이해한 유대는 폭력이 바로 ‘기표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기표는 자신의 약점인 가정형편을 숨기기 위해 담임의 가정방문을 번번이 방해한다. 하지만 형우에게 일임했던 기표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담임은 결석하는 기표를 찾아 뚝방 동네를 이틀이나 헤맨다. 기표의 방해 노력은 무산되고 기표의 집안사정은 온 학교에 알려진다. 기표의 빈곤이 날날이 알려지고 형우의 주도로 학급과 학교의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면서 기표는 달라진다. ‘항상 뺏뺏하게 쳐들고 앉았던 고개가 숙여지는 이상한 조짐²³⁾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들은 기표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게 된다. 기표는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되었다.

“형, 우리 미술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명스럽게 뻗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33면.)

‘절대적 악의 화신’이었던 기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기표에게 악은 본능이 아니었다. 기표가 폭력을 행함으로써 숨기고 싶었던 가

22) 김현정, 앞의 논문, 64면.

23) 전상국, 앞의 책, 32면.

정형편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이기려는 위악이 의미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기표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기표는 매번 침묵으로 담임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집안 사정이 신문 미담란에 나오고 사회 각계에서 성금과 위문편지를 보내오는 것을 넘어서 담임이 기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영화사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사흘 전이었다.

담임선생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

“내일 천일영화사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나?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써어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40면)

기표는 무엇을 무섭다고 하는가? 유대가 무섭다고 인식한 기성사회의 양면성일 것이다. 바로 ‘어른들의 음흉스러움,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떼는 저의’²⁴⁾이다. 이는 형우의 현란한 말솜씨 뒤에 숨어있는 담임의 위선적 구원 활동이다. 기표는 폭력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기성사회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드러나고 형우가 대행하는 도움을 받으면서 위악적 폭력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굴종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굴종의 모습은 기표 자신이라 할 수 없다. 주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얻은 화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표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 상황에 처한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남게 되는 무서움을 인식한 기표는 떠남을 결심하게 된다.

기표에게 떠남은 기성사회가 만들려는 ‘벌레’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표가 길을 나서는 행위는 위선의 탈을 쓴 기성사회의 폭력과 억압이 자신을 잃게 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찾기 위한 탐색의 실천이다. 자아가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기표가 침묵할 수

24) 전상국, 앞의 책, 32면.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기표가 ‘무서워 살 수가 없다’는 쪽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떠난 것은 자아 찾기의 시작이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표의 떠남은 앞날이 불확실하지만 저항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 성장주체가 되지 못한 형우-모방과 대리수행의 제자리

서술자 유대의 제2 초점화 대상은 형우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형우를 성장주체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악의 대행자로서만 주목했다. 그러나 기성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미숙한 성장주체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장주체의 동일시가 갈등이나 인식 차원의 변화를 겪고 이루어졌다면 성장의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성사회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기성사회 편입을 위한 자발적 굴종이라면 성숙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이다. 유대의 서술에 의하면 형우는 ‘일단 학교당국의 지시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²⁵⁾ 또한 형우는 담임이 기표의 구원을 일임했다며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형우의 이러한 동일시와 대행에는 갈등의 과정이나 성찰의 단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서술자 유대가 볼 때 형우에게는 기성사회의 구조가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 기성사회의 구성원들도 형우를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형우는 기표를 포함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훌륭한 선의 외면을 지녔기 때문이다.²⁶⁾ 반장이 된 형우는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고 기표를 구원하는 활동의 하나로 기표의 컨닝을 돕다가 기표에게 무자비한 린치를 당한다. 주민에게 구출된 형우는 이 일을 계기로 학교의 영웅이 되었다. 자신을 때린 사람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은 것이다.

형우에게 담임은 ‘우리’였다. 형우가 담임의 편에 서서 기성사회의 대리수행에 충실한 결과 형우는 참다운 우정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담임선생 역시

25) 전상국, 앞의 책, 13면.

26) 전상국, 앞의 책, 20면.

반의 결속을 위해 남다르게 애쓴 일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담임은 학급을 맡은 첫 날 학생들에게 ‘한마음으로 하는 항해’²⁷⁾를 하자고 한다. 자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담임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고삐를 쥐어주는 일을 경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담임은 고삐를 형우에게 쥐어줬다. 형우는 학교의 영웅이 된 후 더 적극적으로 선생의 역할을 대행했다. 기표네를 돕는 불우이웃돕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 유대는 형우의 양면성을 알고 있다.

놀라운 일은 형우의 허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 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 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36~37면)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고 기성사회의 위선을 대행하던 형우의 대리수행은 기표의 저항으로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기표가 구원의 모습이 완성되기 전에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성장소설의 결말은 성장주체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든 결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우는 유대의 서술 대상에서 사라져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형우가 기성사회의 대행을 잘해낼 때는 담임과 ‘우리’일 수 있었지만 역할 수행이 무산되면서 대리자로서의 존재의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형우는 기성사회를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동일시를 시도하며 기성사회에 안착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대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담임은 형우가 자신의 의증을 충실히 이행한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형우가 유대의 경우와 같이 다시 대행자의 역할을 제의받아 수행하게 되면 기성사회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형우는 인식차원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의 상태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정지된 성장으로 볼 수 있다.

27) 전상국, 앞의 책, 9면.

5. 세 성장의 관계와 의미

유대는 반장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가 되어버렸던 기억에서 기성사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기성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유대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기표의 위악적 저항을 외면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기표가 살아가는 힘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기성사회에 저항하는 기표를 우상으로 삼는다. 유대는 굴종의 상태에 있는 기표를 보고 자신의 우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서술한다. 굴종의 문제를 의식한 유대는 인식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것이다.

유대는 형우가 기성사회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성사회의 양면성과 위선적 모습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나 문제의식에만 그치고 다시 순응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인다. 문제의식이라는 인식차원의 성장은 하였지만 비판적 사고만으로는 성숙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는 미완의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에게는 다시 실천차원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온다. 우상인 기표가 굴종의 상황에 분노하며 자기 발전을 위해 떠났기 때문이다. 유대가 기표의 떠남을 계기로 인식과 실천차원의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유대는 바람직한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유대는 다른 주요 인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행위의 주체이면서 다른 인물들과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이다. 유대는 서술의 주체로서 기성사회를 직시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을 들려준다. 기성사회와 성장주체의 관계도 유대의 시각에 의해 문제적으로 전달된다. 성장기 독자는 결코 '좋은 선생'이 아닌 담임에 대한 유대의 서술로 기표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고 유대의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전이되어 인식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기표는 유대가 담임에게 질문을 한 첫 날, 아니꼽게 굴지 말라며 린치를 가한다. 유대가 기성사회의 위선을 지적한 것에 대해 아니꼽게 굴지 말라는 기표의 말은 문제의식을 공유함을 보여준다. 또 기표가 담임이 마련해 준 체육복을 칼로 찢거나 형우가 자신에게 권닝을 시켜주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는 자신이 행했던 위악적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표는 유

대를 비롯한 학우들에게 기성사회에 저항하는,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영웅²⁸⁾으로 여겨진다. 기표는 결말에 떠남으로 저항의 행위를 완성하는데 길떠남은 영웅담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티브²⁹⁾다.

유대 스스로는 성장의 완성이 유예되지만 유대의 문제의식은 기표에게 영향을 준다. 굴종의 상태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대가 다가와 형이라고 말을 걸 때 기표는 유대가 자신의 굴종상태를 문제시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기표가 그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표는 기성사회의 암묵적 지시 아래 자신을 도우며 형우가 선행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은 무화되는 것을 깨닫는 인식차원의 성장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 기표는 형우의 철저한 대항 단계에서 분노로써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그리고 자신이 기성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영화화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표는 실천차원에서 떠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기표에게 가족은 위악을 부르고 굴종을 택하게 한 이유였다. 그 가족 관계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떠남을 택한 것은 기표에게는 실천차원의 성장이며 용기이다.

기표가 계속해서 굴종상태에 있었다면 통합까지 이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기표의 굴종은 자발적이 아니었으므로 굴절된 콤플렉스를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남이 곧 성장의 완성이므로 이어지지 않는다. 혼자 떠난 길에서는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 과제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³⁰⁾ 기표는 자기를 지키는 힘으로 폭력을 선택한 적이 있다. 기표가 자기 탐색을 통해 이런 과거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표의 불확실한 성장은 성장주체가 자신의 위기를 지각하고 그 위기를 건너는 것을 보여주는 제한적 의의만을 지닌다.

그러나 성장기 독자들은 기표가 떠나는 행위로 실천적 차원의 성장을 할 때 기표가 진정한 성숙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기표의 성장은 불확실하지만 보는 이에게 완성을 꿈꾸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표의 떠남은 자신이 구

28) 책 내용에 기표를 ‘신화, 우리에게 가둘 수 없는 사자’ 등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온다.

29) 장서영, 『한국현대성장소설의 모티브 분석』,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9.

30) 최현주, 앞의 책, 51면.

원의 대상으로 완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행위으로써 기성사회의 대리자 형우의 절대적 순응을 방해한다. 성장기 독자들은 기표를 보며 속과 겉이 다른 형우의 험란한 말솜씨가 기표를 벌레처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게 된다. 경계심과 두려움은 문제의식의 비탕으로 인식차원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이다.

형우는 기성사회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감출 줄 안다. 그래서 기표의 위악적 저항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형우는 대리수행을 하며 기성사회의 양면성까지 철저히 내면화한다. 하지만 형우는 유대의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중적 모습을 드러낸다. 형우는 담임과 같이 위선적인 말솜씨로 기표를 굴종의 상태에 빠뜨린다. 그런데 형우의 구원활동은 결과적으로 기표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유대에게는 문제의식을 한 차원 나아가게 했다.

기표의(또한) 위악적 저항이 형우에게 기성사회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기표의 마지막 저항은 형우에게 자신의 대행을 되돌아볼 기회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기표가 실천적 차원의 성장으로 떠남을 택할 때 형우의 모방은 멈추게 되고 형우는 기표를 구원하는 대행 역할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대행에 불과했던 자신의 역할을 형우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성사회의 대행 역할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형우는 대행의 역할을 했지만 이를 통해 주체성을 얻지는 못했으므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식 차원의 단계가 없었던 동일시는 성장의 다음 단계로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우가 기성사회를 대리하는 행동이 잘 수행될수록 역설적으로 기표뿐만 아니라 형우 자신도 철저한 굴종 상태가 된다. 이를 통해 성장기 독자들은 맹목적 모방과 단순한 동일시의 위험성을 깨닫는 계기를 얻는다. 자신도 모르게 기성사회의 수단이 되어버린 형우와 유대의 체험을 통해서 독자들은 구조적 악의 위선도 파악할 수 있다.

세 성장주체의 성장 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기표의 위악적 저항과 기표에게 행해진 기성사회의 위선 덕분에 유대는 인식 차원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대는 기성사회의 문제를 표면으로 떠오르

게 한다. 기표가 굴종하게 되면서 유대의 성장은 인식차원에서 다시 한 번 발전한다. 그리고 기표가 분노하고 떠남으로써 유대의 성장은 실천차원까지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또한 기표의 저항과 굴종 단계는 형우의 모방·순응의 과정과 일치한다. 기표의 저항은 형우가 대리 수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형우의 모방·순응이 극대화될 때 기표는 굴종의 단계에 이른다. 그러나 형우가 철저히 기성사회를 대리 수행하는 단계는 기표의 분노·자기발견을 완성시킨다.

기표를 응원하는 서술자 유대에게는 기표의 출발이 문제의식으로의 회귀이며 희망적인 떠남이다. 하지만 형우에게 기표의 떠남은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거나 제자리에 정지시키는 분기점이다. 기표의 통과 의례는 기성사회의 위선적 악이지만 유대와 형우의 통과 의례는 기표의 떠남일 수 있는 것이다. 『우상의 눈물』에는 이렇게 성장소설을 분석하는 세 단계가 개인들 내면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성장주체들 사이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유대		기표		형우	
굴종·순응 (척자) ↓		저항 (위약적 폭력으로 자기보호) ↓		기성사회 동일시 (모방·수용) ① 저항	
분노·자기발견 (기성사회와 거리두기)		↔	굴종·순응 (침묵, 우상의 눈물)	↔	굴종·순응 ↗ (기성사회 대리수행)
③ 저항		↓	↘	분노·자기발견 (길 떠남)	② 분노·자기발견
↙	↘	↙	↘	↙	↘
비판의식	순응	성숙	불확실	대행반복	정지
미완의 성장		불확실한 성장		정지된 성장	

1. 화살표는 성장주체들이 주고받은 영향
2. 번호는 성장주체가 거치지 않은 성장단계

6. 결

배신자와 구조적 악의 희생자라는 이중 의미를 가진 이름³¹⁾의 유대는 담임이 가치로 내건 ‘사랑과 신뢰를 통한 반의 결속’³²⁾이 어떠한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통제와 지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 유대의 인식은 선과 악의 불분명한 경계, 기성사회의 양면성, 위선과 위악의 대립 등을 간파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유대는 인식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유대가 자신이 우상으로 여기던 기표의 떠남을 계기로 실천적인 변화를 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인식차원의 성장만을 이룬 것이 된다.

기표의 폭력은 외면상 절대적 악이지만 유대의 관점에 의하면 기표의 기의(記意)는 그렇지 않다. 기표는 세상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성사회에 대한 마지막 반항으로 기표는 그들의 최종계획을 무너뜨린다. 위선의 언설로써 자신을 벌레로 만드는 기성사회의 억압과 폭력의 과정에서 굴종했던 기표는 이를 분노의 계기로 삼아 길을 떠나는 모험을 결행한다. 그러나 기표가 선택한 실천차원의 성장인 떠남의 길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현대의 아버지 역할을 대상세계가 대신할 때 아들에게는 본보기가 사라지고 반항의 대상도 모호하다. 그런 경우 성장주체는 대상세계를 맹목적으로 모방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형우는 기성사회를 내면화하여 대항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 하지만 대항자의 모방은 주체적 각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우는 기성사회에 편입하여 구조적 악을 돕게 될 뿐이다. 하지만 모방의 대상이 전면에 나서면 대항자의 역할은 사라진다. 그래서 성장의 변화가 어떻게든 드러나는 성장소설의 결말에서 형우의 모습은 사라진다.

성장기 독자는 성장소설에서 성장주체와 성장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숙의 매개나 각성의 계기를 발견한다. 또한 독자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동일시하며 관계적 자아를 추체험한다.³³⁾ 그러므로

31) 전상국, 앞의 책, 10면.

담임이 농담처럼 던진 말처럼 유대라는 이름은 유대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배신자 유대는 전 학년에 반장으로서는 반 아이들을 배신하며 담임에게 고자질을 하였던 유대이다. 이스라엘 유대는 구조적 악의 희생자로서 자신도 모르게 첩자의 역할을 하게 된 유대이다.

32) 전상국, 앞의 책, 9면.

성장소설은 완전히 각성된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의식 상태인 서술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서술자와 다른 인물들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독자의 주체적 자기 인식을 일깨운다.³⁴⁾ 성장소설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장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³⁵⁾은 성장소설의 큰 덕목이다.

『우상의 눈물』에서는 다양한 성장의 단계와 성장의 모습이 여러 성장주체에 의해 제시되고 그들은 각 성장 단계마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서술자를 성장주체로 세우고 서술자의 일관된 시각으로 다른 두 성장주체를 바라보게 하여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 단계의 변화를 겪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기 독자들은 『우상의 눈물』의 유대를 통해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천 차원의 성장을 꿈꾸고, 기표가 저항으로 떠남을 택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각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상의 눈물』은 열린 결말로 독자의 몫을 강조한다. 성장기 독자가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문제해결력을 얻게 하는 것은 성장소설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성장소설의 열린 결말의 의의는 매우 크다. 성장기 독자는 성장소설의 열린 결말에서 성장주체와 함께 내면적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눈물』이 보여주는 다양한 성장 모습과 열린 결말은 『우상의 눈물』이 성장소설로서 큰 현재적 의의를 갖게 한다.

33) 김은정, 앞의 논문, 22~23면.

34) 최현주, 앞의 책, 150면.

35) 김병희는 작중인물의 정신적 위기와 이에 따른 각성,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정립의 과정이 성장주체의 일생에 걸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고 이것이 성장소설의 가치라고 보았다. 성장기 독자가 성장주체의 성장과정을 같이 하면서 얻은 체험이 독자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병희, 앞의 책.

〈참고문헌〉

<자료>

전상국,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논저>

권필희, 『독재정치기의 문학 속의 인물상 연구』, 대진대 교육대학원, 2004.

김병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구조와 의미망』, 한국학술정보, 2007.

김영선,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방법』, 『동국어문학』제14집, 2003.

김은정, 『청소년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2006.

김현정, 『전상국 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돈암어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7.

송용주, 『교육소설에 나타난 교사상 고찰과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 교수법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9.

양선미, 『전상국 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양승숙, 『한국 성장소설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1.

이진아, 『성장소설을 통한 문학교육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장서영, 『한국현대성장소설의 모티브 분석』,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9.

전혜정, 『성장 소설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2004.

진혜정, 『성장소설에 나타난 교사의 유형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2004.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한용환,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성장소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 제 5권, 1998.

황성애, 『전상국의 성장소설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2004.

황수정, 『전상국 소설의 공간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국문초록】

성장소설에서는 미숙한 개인이 기성사회와 갈등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는 지에 따라 성장의 모습이 달라진다. 각 성장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1970~80년대 한국의 성장소설은 대부분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무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 성장주체의 기성사회 진입을 위한 계기는 주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졌다.

서술자인 유대는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기성사회의 위선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인식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 가능성만 보이는 미완의 성장 상태에 놓인다. 기표는 절대적 악의 화신으로 보이지만 기성사회의 위선적 악에 희생된다. 그러나 자신이 무화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걸 버리고 떠남으로써 자신을 찾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경우여서 아직 불확실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형우는 기성사회를 내면화하고 철저히 대항하지만 기성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형우는 갈등을 겪는 주체적 성장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세 성장주체는 저항-굴종-분노의 단선적 과정과 동시적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 그리고 관계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에 관여한다. 『우상의 눈물』은 이렇게 다양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열린 결말을 취하여 성장소설로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성장주체, 미완의 성장, 주체적 성장, 떠남, 대항

【Abstracts】

A Study on The Significances of 「The Tears of Idols」 As an Growth Novel

Park, seon-Yang

In the initiation novels, the modes of initiation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hich relation the immature individuals have to the established community, having trouble with it. In 1970s' initiation novels of Korea are, most of all, the figures of father are absent or good for nothing. In this period, the moment of the initiation for entering the established community were mad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narrator Judae reveals the hypocrisy of the established society, but fails to put this realization into practice and, accordingly, makes immature initiation, showing only potency. Kipyoo seems to have been the incarnation of the evil but is the victim of the hypocritical evil of the established society. Facing the crisis of being nullified, he leaves everything behind to make a foundation for initiation in search of himself. Hyungwoo internalizes and acts for the established society, but is not the subject. In order to accomplish the initiation, he should start the process of subjective initiation again.

the three subjects of initiation show both the linear process and the coincidental appearances of resistance-submission-rage, and have each hand in others' initiation, being related each other. 「The Tears of Idols」is

of such a deep significance in so-called hyper-period, putting an open end of showing the various initiations.

Key words : subject of initiation, immature initiation, subjective initiation, departure, vicarious executi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